

지역 소식통

부안군, 업무 편람 발간
배부 질 높은 행정서비스

부안군이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안군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안군 업무담당자들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곧 부안군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총 1,495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된 이 편람에는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표준사무, 민원업무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실무내용을 체계적이고 상세히 기술 누구나 쉽게 업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한 처리 절차도는 인사이동으로 생길 수 있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업무를 처음 맡거나 익숙지 않은 신규 직원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침서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벼 이삭거름 적기
'벽보 제작 농가배부'

고창군이 19일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위해 이삭거름을 적기에 적량을 준수해 사용토록 농가에 당부했다.

군은 이삭거름 적기를 추정할 수 있는 벽보 1500매를 제작했다. 벽보에는 품종별 이삭 패는 시기, 거름 주는 시기, 이삭거름 사용량, 도복 경감제 사용 시기 등을 수록해 농가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삭거름은 벼 이삭이 출기 속에서 자라기 시작할 무렵에 수량증가 효과를 위해 주는 옷거름이다. 보통 이삭패기 25일 전에 주는 것이 적당하며 고품질 쌀 생산과 쓰러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삭패기 15일 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용량은 10a당 NK비료를 10~11kg을 사용하면 된다. 벼의 잎색이 너무 짙거나 잠마가 계속되면 이삭거름을 표준시비 일정보다 일주일 정도 늦추고 칼륨 비료 위주로 시비하는 것이 좋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 대비 방역 생활화 '당부'

이학수 정읍시장, 4차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기저질환자 적극 접종 독려

이학수 시장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일상 방역 생활화를 당부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고, 에어컨 사용 환경에서 실내 활동이 늘어난 만큼 시민들의 마스크 사용과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



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19일 현재 정읍시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1명이다. 지난 5월과 6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10명 미만이었던 일일 확진자 수가 2개월 만에 70명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 4차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1963.1.1.~1972.12.31.)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입원·종사자를 대상으로 했다.

4차 예방접종은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다. 해외 출국이나 입원·치료 등 개

인 사유가 있을 때는 3차 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 중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다. 아울러 기 확진자의 경우에는 확진 판정일로부터 3개월 이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접종 방법은 3차 접종과 마찬가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사전 예약 누리집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주민센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예약 후 접종하거나, 진여 백신을 이용해 당일 접종할 수 있다.

당일 접종 및 사전 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했으며 사전 예약에 따른 예방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도심 속 물놀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하 정읍천 물놀이장)이 오는 23일 본격 개장돼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된다.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개장

이용료 무료...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30분까지

도심 속 물놀이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하 정읍천 물놀이장)'이 오는 23일 본격 개장돼 다음 달 21일까지 운영된다.

정읍천 물놀이장은 정읍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 속 생태하천인 정읍천을 활용해 조성된 시설이다.

정읍고등학교 앞 시가지 정동교 교량 아래 3,860㎡의 면적에 어린이 풀장 2곳과 미끄럼틀 2개소, 인공폭포와 안마용 폭포수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아간에는 정읍천 제방 뒤편에 설치된 경관조명이 멋진 풍경을 더하고, 낙차로 떨어지는 물소리는 한여름 밤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이용료는 무료다. 다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우천으로 하천 수위가 증가하거나 수질이 탁해지면 운영이 일시 중지될 수 있다.

시는 운영 기간 중 매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지

할 계획이다.

정읍천 물놀이장은 해마다 많은 이들이 즐겨 찾고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은 초·중·고생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수심이 얕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호응이 매우 좋다.

시는 이용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시설(몽골 텐트)과 평상, 남녀 탈의실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또 개장 기간 관계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수상 안전요원, 물놀이 보조요원, 응급 진료 요원 등 매일 19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은 정읍시민은 물론 전주나 광주 등지의 인근 도시민들에게 피서지 명소로 자리 잡는 지 오래"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코로나19 4차접종 확대 실시

50대·18세이상 기저질환자·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종사자 대상

고창군은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권고에 따라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50대 연령층,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4차접종 효과는 3차 접종군 대비 중증화 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 53.3%로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차접종 대상자인 50대 연령층은 출

생연도 기준으로 1963년 이후 출생자부터 1972년 이전 출생자이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1973년 이후 출생자부터 2004년 이전 출생자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에 기저질환 보유 여부를 표시하고 예진 의사의 확인·상담 후 접종받으면 된다.

접종간격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mRNA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하며 예약시 선택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시행중

이고, 진여백신으로 당일접종도 가능하며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질병청 누리집(ncvr.kdca.go.kr)이나 1339, 고창군보건소 콜센터(560-8570)를 이용하여 예약하면 된다. 또한 12개 보건지소에서도 방문 시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격적 근거에 기반해 확대 시행하는 만큼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 재유행에 대비해 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래 의원 선임

부안군의회가 박병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22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회는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병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오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번에 부안군의회에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1,372억원이 증액된 총 8,473억원 규모로서 예산안심사를 거쳐 2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병래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2022년 군정보고와 더불어 제대 부안군의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출발점으로서,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민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의원들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불요불급하고 비효율적 사업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고, 법적절차 미비, 산출근거 불확실, 선심성 예산 등 부적합한 사업 등에 대해 철저히 따져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대 군의원에 이어 제9대 군의원에 재선된 박병래 의원은 제7대 부안군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원화 문제해결에 앞장선다는 입장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문화 활동 성료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지난 7월15일(금) 읍·면 및 청소년 유관 기관 추천으로 구성된 문화적 소외 청소년 30명 대상으로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문화 탐방 및 체험 활동을 운영하였다.

군은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들이 문화적 소외에서 벗어나 문화를 향유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문화 지원 활동을 통하여 발굴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심리 검사, 개인 상담 지원 등 위기 청소년 단



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 지원 참여 청소년들은 "문화유산 탐방 및 제주 고유의 문화 콘텐츠 경험은 신비롭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전체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통해 긍정적인 정서가 형성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